

■ 책을 읽고 ■

Joan Wallach Scott, *The Politics of the Vei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김진영

I.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터키의 소설가 오르한 파묵(Orhan Pamuk)은 그의 소설 『눈(Kar)』(민음사, 2005)에서 히잡 착용을 고수하는 터키 여학생들과 이를 금지하는 세속 정부의 갈등을 그려냈다. 이 소설에서 히잡은 이슬람주의자와 세속주의자가 충돌하는 메타포로 등장했다. 터키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이 작품은 특히 이슬람 문명과의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서구권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소설에서 나타나는 히잡의 갈등은 단순한 픽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또한 히잡은 무슬림이 대다수이지만 세속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터키만의 문제도 아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영국에서는 2005년 7월 런던 테러 사건 후 전 외무부 장관이었던 노동당의 잭 스트로우(Jack Straw)가 히잡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2004년 ‘공립학교 내 가시적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법’을 통해 무슬림 여학생이 교내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다른 유럽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히잡에 대한 여론 악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와 같이 히잡 착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했다. 유럽에서 히잡은, 그리고 특히 프랑스에서 히잡은 소설 속 가상의 주제가 아니라, 현대 유럽의 무슬림 갈등 문제에서 가장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논픽션’인 것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조앤 스캇(Joan Wallach Scott)은 2007년 *The Politics of the Veil*(Princeton University, 2007)을 통해 프랑스의 히잡 착용 금지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스캇이 이 분야를 처음으로 연구한 학자는 아니다. 1989년 파리 근교의 크레유(Creil)에서 여학생 세 명이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히잡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왔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주로 프랑스의 라이시테(laicité)측면에서 히잡 사건을 바라보았으며, 여성의 의복이라는 히잡의 특성을 들어 젠더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스캇의 연구 역시 기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프랑스사를 다루는 역사학자로서 저자는 라이시테를 히잡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사의 선구자인 스캇은 히잡 사건이 드러내는 젠더적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프랑스의 히잡 문제의 연구에 있어서도, 그리고 조앤 스캇 본인의 학문적 연구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히잡 사건에서 프랑스의 공화주의(republicanism)와 라이시테(laicité),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프랑스의 특징 중 한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히잡 사건을 분석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설명해 왔다. 그러나 스캇은 그의 저서에서 각 항목별로 구분을 두고 라이시테와 히잡, 개인주의와 히잡, 인종주의와 히잡 등으로 논쟁의 쟁점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각각의 특수성이 히잡과 어떤 방식으로 대립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비록 스캇 역시 히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층위로 인해 이러한 분류 과정이 쉽지 않다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만, 그는 히잡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논쟁이 프랑스 고유의 가치 중 어느 부분과 대립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스캇은 기존의 담론이 언급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라이시테와 페미니즘의 역사적 분석을 통해, 기존 담론이 반복해왔던 주장에서 맴도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각과 개념을 제시하는데 성공하였다.

스캇의 개인적 연구 측면에서도 이 책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86년 발표한 논문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American Historical Review 91, No. 5, December 1986)로 젠더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스캇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역사 속의 젠더 문제를 탐구해 왔으며, 특히 본인의 전공인 프랑스 역사에서 드러나는 젠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The Politics of the Veil*도 역시 프랑스에서 발생한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기존 연구 분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스캇의 연구는 주로 주류 프랑스 사회 내의 여성을 주제로 다루어 왔다.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엘피, 2006, *Only Paradoxes to Offer: French Feminists and the Rights of Man* French Feminists and the Rights of Man의 번역서)에서는 대혁명기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던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와 제3공화국 시기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 노력했던 위베르틴 오클레르(Hubertine Auclert) 등을 다루었으며, 『Parité! 성적 차이, 민주주의에 도전하다』(인간사랑, 2009, *Parité!: Sexual Equality And the Crisis of French Universalism*의 번역서)에서는 2000년 프랑스 선거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수(同數)로 공천하는 법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러나 이 책은 프랑스 여성 중에서도 소수자라 할 수 있는 이주민 출신의 무슬림 여성을 핵심적으로 다루며 자신의 연구 범주를 한 단계 더 확장했다. 이러한 시도는 스캇이 젠더사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 정치를 보편화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욱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스캇은 히잡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의미있게 분석하고, 프랑스의 특수성이

가지는 한계를 밝히고 있지만, 2004년 히잡 금지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의 프랑스 사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는 약간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물론 몇 가지의 인용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입장의 대립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당시 찬반양론에 대한 세부적 의견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사건의 밀접한 관계자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내의 이슬람 커뮤니티의 반응이나 실제 프랑스 무슬림들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것은 저자인 스캇 역시도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다.(p. 10) 그리고 프랑스가 무슬림 이외의 소수자들을 다루어 왔던 방식과 제도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설명을 덧붙였더라면 히잡을 둘러싼 프랑스 사회의 단면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스캇이 말하고자 한 핵심적 요지, 즉, 프랑스 사회가 무슬림 이민자와 그 후손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스캇은 *The Politics of the Veil*을 통해, 프랑스가 힘없는 무슬림 여학생을 이용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어떠한 방식으로 덮으려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II.

스캇이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왜 히잡이 문제가 되었는가?”(p. 3) 저자는 실제로 극소수의 여학생들만이 학교에 히잡을 착용하고 다닐 뿐이며, 히잡을 쓴 여학생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프랑스를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으로 금지했던 근원을 분석한다. 그리고 ‘히잡 법’이 무슬림을 프랑스 주류로 동화시키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라는 결론을 내린다.

프랑스에서 베일 착용의 의미는 매우 복잡적이다. 이 작은 천 조각에는 무슬림 여성들이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이슬람 문화 속에서 받는 억압의 상징, 프랑스 문화를 위협하는 이민자 집단의 상징, 라이시테와 보편주의(universalism)를 비롯한 프랑스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반프랑스적 상징 등 프랑스와 대립되는 무슬림 이민자를 나타내는 온갖 부정적 가치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베일의 반대항에는 ‘단일하고 불가분의 프랑스’로 대표되는 프랑스 공화주의의 신화가 자리 잡고 있다.(p. 10) 즉, 프랑스는 베일을 금지함으로써 북아프리카 이주민들을 신화적인 프랑스 공화주의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동화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스캇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스캇은 베일에 명백한 인종주의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과정을 밝히기 위해 저자는 베일 논쟁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해 간다. 스캇은 베일이 단순히 20세기 후반에 프랑스로 유입된 북아프리카 이민 여성이 착용하면서 갈등을 빚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저자는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프랑스가 베일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은 베일 연구 분야에서 스캇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점으로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베일은 프랑스 제국주의의 서막을 알렸던 1830년 알제리 점령에서부터 프랑스와 연결되어 있었다. 현재 나타나는 베일의 문제를 19세기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진출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은 베일 연구에서 스캇이 보여주는 독창적인 부분이다. 이를 통해 스캇은 베일이 오랜 시간동안 역사적 맥락 속에서 프랑스 문명의 우월성과 대비되는 비유럽의 미개함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스캇에 따르면, 히잡은 제국주의 시기에는 이국 여성의 유혹과 지배에 대한 환상으로, 알제리 전쟁 시기에는 여성들이 아랍 전통 의상 속에 무기를 숨기며 공급했던 것으로 프랑스에 대한 저항과 공격의 상징으로, 그리고 현대에는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하는 자들의 통합 불가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다.(p. 89) 즉, 히잡은 역사 속에서 항상 프랑스인과 북아프리카 무슬림을 구분하는 도구가 되어 왔고, 프랑스는 히잡을 통해 프랑스 문명의 변함없는 우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III.

베일에 인종주의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저자는 히잡 착용 금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프랑스의 라이시테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 히잡 논쟁에서 라이시테는 빠지지 않는 핵심적인 주제이다. 히잡을 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의 라이시테를 지적하고 있으며, 스캇 역시 그러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스캇은 단순히 라이시테가 히잡으로 대표되는 무슬림 집단을 수용하지 못하는 근거가 된다는 설명에 그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라이시테는 제3공화국 시기 교육 분야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확립된 프랑스의 정교분리 원칙으로 설명된다. 그렇기에 흔히 라이시테와 히잡을 이야기할 때면, 프랑스 전통 고수의 측면에서 라이시테 원칙의 불변을 강조하거나, 라이시테 원칙이 무슬림에게만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스캇은 라이시테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라이시테를 세분화하여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스캇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스캇은 학교 교육에서 종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공화주의적 라이시테’라 명명하고, 이러한 ‘공화주의적 라이시테’가 라이시테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p. 121) 그는 프랑스 역사 속에서 공교육이 종교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했다는 점을 찾아냈다. 정교분리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학교 교육은 교회가 일요일에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했고, 종전 이후에는 국가가 종교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었다. 심지어 알자스-로렌 지역은 정교분리협약이 맺어진 1905년 당시에는 독일령이었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재까지도 라이시테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알자스-로렌 지역에는 국가가 라이시테를 강요하기 보다는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여 다양한 종교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이유로 스캇은 라이시테를 단순히 종교와 교육의 분리를 말하는 원칙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라이시테는 공교육이 학교라는 기관에서의 교육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배양할 수 있게 하는 원칙에 더욱 가까운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상이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원칙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히잡을 쓴 여학생을 추방하는 것은, 이들 여학생이 처음부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p. 123) 스캇은 장 보베로(Jean Baubérot)의 말을 인용하여, 이러한 ‘민주주의적’ 라이시테는 현재 프랑스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문화적 및 사회종교적 갈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시테를 위협하는 것은 히잡을 쓴 여학생들이 아니라, 종교와 세속을 완전한 대립항으로 취급하는 ‘공화주의적’ 라이시테라고 밝힌다.

IV.

스캇은 히잡 착용 금지론자의 또 다른 주장인 프랑스의 개인주의에 대해서도 그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주의 역시 히잡 논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부분들이며, 스캇도 학계에서 논의되는 프랑스 개인주의의 일반적인 문제들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되는 개인주의는 프랑스의 구성원들을 추상적 개인(an abstract individual)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배경이나 집단, 종교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한 인간의 자격으로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이는 법 앞에서 모든 개인의 공식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이며,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 이래로 프랑스의 구성원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자발적 참여 의사를 원칙으로 두어 왔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의 무슬림은 추상적 개인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 집단이었기에 이들은 프랑스의 일원이 될 수 없는 부류가 되었으며, 프랑스는 이들이 가진 정체성을 버리고 프랑스에 동화될 것을 강요해

왔다.

무슬림 여학생들의 히잡을 벗기려는 주장도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히잡 착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학생들이 무슬림 집단이 가지고 있는 후진적 특성, 즉 종교의 속박과 부모의 강요 속에서 이들이 히잡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히잡 착용 금지는 사회의 억압과 몽매함으로부터 소녀들을 구출하여 이들의 삶에 지식과 자유를 열어주는 영웅적 행동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스캇은 프랑스 개인주의의 일반적 설명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개인주의가 공격하고 있는 무슬림 여학생의 분석에 있어서는 그의 독특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 여학생들이 히잡을 개인적 선택에 의해 착용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슬림 소녀들의 종교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서 부모가 히잡 착용을 강요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스캇은 올리비에 루아(Olivier Roy)를 인용하여 이들이 공동체와 사회에서 정신적 가치의 결핍을 느끼고, 이 부족분을 개인적 차원에서 추구하려는 ‘새로운 시대의 종교인’의 측면으로 평가하고 있다.(p. 126)

스캇은 이 지점에서 프랑스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프랑스의 개인주의는 모든 개인들의 동일성(sameness)을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성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실제 사회에서 프랑스의 일원임을 판단할 때 그 동일성을 측정하는 수단은 프랑스 주류인들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구체적(concrete)인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p. 148) 이에 따라 무슬림과 같이 프랑스 주류가 아니었던 여성과 동성애자 등 프랑스에서 차이의 인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버리지 않는 한 프랑스 내에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프랑스의 개인주의는 차이를 제거하는 동화의 방식으로만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스캇은 무슬림 여학생의 문제가 히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고 불가분한 프랑스’의 개인주의가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구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V.

이 책에서 나타나는 스캇의 연구 중 가장 독창적인 부분은 바로 젠더적 측면에서 히잡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젠더사의 선구자라 불리는 스캇이 히잡에서 젠더를 언급하는 사실이 진부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히잡의 섹슈얼리티는 스캇 이외에도 언론이나 페미니스트들이 자주 언급해 왔던 주제이기, 젠더적 접근법 그 자체로는 스캇의 이 책이 새롭거나 신선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Politics of the Veil*의 특징으로 히잡의 젠더적 접근법을 들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젠더적 접근법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통해 프랑스 사회 내의 젠더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스캇은 베일 금지법을 통해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역시 히잡에 대해 프랑스 공화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프랑스의 여성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한계를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있다.

공립학교 내 가시적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 법안 논의에서 등장했던 ‘과시적(ostentatious, *ostentatoire*)’이라는 단어는 사실 무슬림 여학생들에게는 상반되는 뜻이었는데, 이들 소녀들은 히잡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여성의 성적 유혹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과시적’이라는 용어를 적용한 것은 프랑스 주류 집단과 무슬림 이민자 집단 간의 서로 상이한 젠더 체제가 부딪히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스캇은 말한다.(p. 152) 프랑스의 젠더 체계에서는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개방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지만, 무슬림의 젠더 체계는 여성의 신체가 개인과 공동체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는 프랑스 여성들의 젠더 체계를 옳은 것으로 규정하고 무슬림을 후진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이들의 히잡을 벗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페미니즘의 핵심적 주장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무슬림의 히잡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이들은 여성들이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 그 논지는 신체의 노출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도록 만든다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히잡 논쟁이 등장하게 되자,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고 신체의 노출(히잡을 벗는 행위)을 여성 평등과 성적 해방의 측면에서 옹호했다.(p. 156) 이러한 점에 대해 스캇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의복이 자유와 속박 둘 중 하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이 이분법적이며, 오히려 여성들을 의복이라는 기준에 종속되도록 만든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p. 161)

프랑스의 페미니즘은 무슬림 여성에게 히잡을 벗으라고 말했지만, 프랑스 페미니스트 스스로도 여전히 여성의 평등을 얻지는 못했다. 프랑스의 공화주의에서 여성은 본질적으로 가진 여성이라는 성별로 인해 추상적 개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스스로 공화주의적 담론에 종속되어 무슬림 여성들을 공격했다. 그리고 이런 프랑스 여성주의자들이 히잡에 대한 반대하는 논쟁을 펼친다는 그 자체가 프랑스 사회 내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습이라고 스캇은 지적한다.

VI.

히잡 논쟁에 대한 배경과 논의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면서, 스캇은 세속주의와 젠더 평등의 수용이라는 미명으로 통과된 2004년의 히잡 금지법이 사실상 인종주의적 표현들을 공식화시키고 차별적 관행을 합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으로 인해 프랑스인과 북아프리카 이민자의 삶에 존재하는 거대한 차이가 드러났고, 그 결과 이방인들을 프랑스 사회의 바깥으로 몰아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프랑스가 탈식민지 프랑스의 문제를 그대로 이민자들에게로 돌렸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프랑스에 마그레브 이민이 대거 유입된 것은 프랑스가 제국주의 시기 북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한데서 기인하는데, 프랑스는

자신의 행동의 대가를 치루기보다 그 문제를 북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스캇은 결론에서 민주주의를 언급한다. 프랑스의 히잡 문제에서 드러나는 프랑스의 인종주의, 공화주의적 라이시테, 동화를 강요하는 개인주의, 프랑스식 젠더의 편협함을 차례차례 밝힌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한다.(p. 181) 이는 스캇이 자신의 역사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주제이며, 이 책에서도 그러한 저자의 성향이 잘 드러나고 있다.

스캇은 베일 논쟁을 해결하려면 프랑스가 이민자를 배척하는 태도를 벗어나 차이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믿는 공화주의의 이념이 만들어진 신화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그리고 이 신화가 인종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프랑스는 공동체의 동일성 oneness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이를 인식하는데서 그 공통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182) 장-뤽 낭시(Jean-Luc Nancy)의 용어를 차용한 스캇은, 쟁점이 구성원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적 존재(common being)가 아니라, 구성원의 공통점을 차이에서 찾는 공동체 내 존재(being-in-common)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The Politics of the Veil*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프랑스와 한국의 이민 문제는 그 세부적 상황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외부인에 대해 동화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유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스캇이 제시하고 있는 것, 즉 상이한 사회 구성원을 취급하는 새로운 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내용은 이방인이 완전한 한국인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역시 오래 전부터 문화화정책을 통해 알제리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식민지인을 프랑스인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으로 결국

실패했고, 결국 동화주의의 실패는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뀌어 현재는 이들을 프랑스에서 내쫓고자 하는 극우 정당 민족전선(Front National)이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우 정당의 출현이 단순히 프랑스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오늘날 한국도 자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도 이들 이민자를 대하는 접근법을 바꾸지 않고 현 상황 그대로 고수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인의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극우 정치 집단이 득세하는 모습을 예견하는 것은 분명 기우가 아닐 것이다.

서강대학교, adelaide16@naver.com